

15000 년 전의 사전(史前)동굴벽화

사전인류예술은 인류문화예술을 더욱 체현하고 있으며 정밀하고도 아름다운 사전동굴벽화는 인류력사문화발전의 가장 좋은 견증이다. 지금 지구에는 5 대 사전동굴벽화 유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라스코크스동굴은 프랑스 서남부에 위치했는데 그 속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15000 년 전의 구석기시대 사전벽화가 들어있다.

쇼위트동굴에는 오리냐크시기(3 만년 전)와 그라위트시기(2.5 만년 전)의 벽화가 있는데 400 마리 동물벽화를 똑똑히 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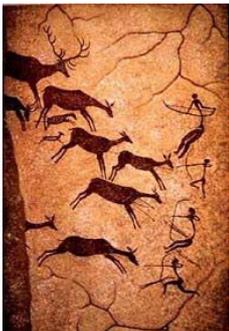
말그라동굴은 벨가리아 서북부에 위치했는데 그 속에

는 춤추는 녀인, 사냥하는 남성, 가면을 쓴 남성, 대형동물, 태양, 별, 여러가지 로동공구, 식물 등 부동한 시대의 사전벽화가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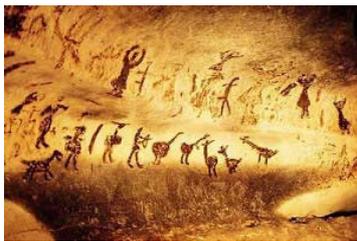
초스킬동굴은 프랑스 말사시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해면 37 미터 아래 물속에 잠겨 있다. 이 동굴 속에는 그라위트시기(2,5 만년 전)와 사루트시기(1,9 만년 전)의 사전벽화와 조각 작품들이 들어 있다.

핀드콤동굴에는 기원전 1,7 만년 전 200 여폭의 사전 벽화가 있는데 그 예술수준은 라스코트스동굴벽화를 훨씬 초월했다.

지금 많은 과학자들은 생물학과 고고학의 대량적인 새 발견에 근거하여 인류의 사전문화를 승인하고 진화론을 부정하고 있다.



라스코크스동굴벽화



말그라동굴벽화



초스킬동굴벽화



핀드콤동굴벽화

요절한 아들의 령혼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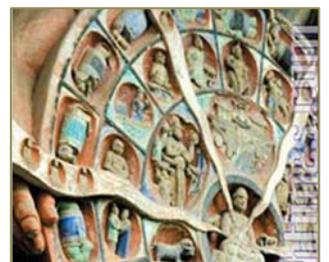
활해영(滑海英)은 하북성찬황현기를검사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역관진파룬궁박해를 주관하는 전직 간부로서 파룬궁제자를 박해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2002 년 2 월 10 일 오후 2 시경에 활해영의 맏아들 활항(滑恒)은 모터찌클을 빌어타고 찬황현에서 매화촌으로 가는 길에서 차사고로 처참하게 요절했다. 이 비통한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의 셋째 고모는 통곡치며 울었다.이윽고 셋째 고모의 몸에 붙은 활항의 령혼부체는 셋째 고모의 입을 빌어 생전의 목소리와 어조로 파룬궁박해에 참여한 아버지를 꾸짖었다. 《아버지,이후엔 파룬궁을 간섭하지 마십시오.파룬궁은 정법입니다.》 셋째 고모는 아무 말 없이 우두커니 서있는 활해영의 옷깃을 잡아 흔들면서 큰 소리로 《파룬궁을 간섭하지 마십시오.파룬궁은 정법입니다.》라고 중복해서 말했다.이때 옆에 섰던 친척이 화해영에게 《왜 아직도 응답이 없습

니까?》하고 다잡아 문자 화해영은 그제야 《옳다. 옳다.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라고 대답했다……

이 소식이 2002 년 2 월 15 일“명혜망”에 《요절한 아들의 령혼부체가 박해를 정지하라고 아버지를 경고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자 하북성위원회에서 즉시 전문인원들을 파견하여 세밀한 조사를 했는데 명혜망에서 보도한 내용은 진실했다.찬황현으로 조동해 간 활해영은 다시는 파룬궁에 대한 박해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에 대한 진상을 알게 된 하북성위원회 간부들도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을 꺼려했으며 박해활동에 점차 손을 떼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사람은 령혼이 있으며 사람이 죽은 후 육신은 썩어도 령혼은 계속 살아있다는 것과 악하면 악보를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



유엔 “종교신앙자유”특파원을 회견

지난 10 월 21 일, “파룬궁인권“조직성원과 중국에서 박해를 받은 수명의 파룬궁학원들이 뉴욕유엔 본부대청에서 아노마-캐한 고르 녀사



(사진 오른쪽 두번째)를 회견했다.파룬궁인권 대변인 진사중 박사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정세를 진술했고 파룬궁학원들도 자신과 친인들이 박해를 받은 경력을 이야기했다.

대만 총통께 “9 평공산당”을 증송

지난 10 월 23 일, 대만총통 마영구(馬英九)



는 제 2 차사립학교 10 대걸출교원 “홍도상”(弘道獎) 획득자를 회견했다.홍도상을 받은 이란현혜 등소학교 교장이며 파룬궁학원인 홍등

상(洪騰祥)은 마영구 총통께 “9 평공산당”을 증송했다.

벼락을 맞은 허씨

복건성 복청동한 사람 허씨는 3 년 전에 결혼할 때 친구 황씨에게서 500 원을 줬는데 깜빡하고 제때에 갚지 못했다. 이에 화가 난 황씨는 지난 8 월 26 일 오후에 나무몽둥이를 들고 허씨네 집에 찾아 가서 빗을 달라고 했다. 허씨는 철면피하게 빗을 승인하지 않고 쇠몽둥이를 들고 맞섰다. 황씨가 《네가 감히 나에게 빗을 지지 않았다고 하늘에 맹세한다면 난 빗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자 황씨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빗을 졌다면 하늘이 날 벼락칠 것이다.》고 외쳤다. 불과 1 분도 안되어 허씨는 생벼락에 맞아 쓰러졌다.



신고를 받은 복청련봉변방파출에서는 허씨를 병원에 호송하여 구급치료를 했다. 번개의 전기량이 비교적 적었기에 허씨는 생명위험에서 벗어날수 있었다. 이 진실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다.

흑형을 당한

연변박해진상 파룬궁학원 리봉운

연길시 파룬궁학원 리봉운 (李凤云)은 지난 9 월 8 일 밤 11 시경에 그의 남편 신전회(申全會)와 함께 화룡시 두도구진에서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두도구진파출소에 갇혀 흑형을 받았다.

몇몇 악경들은 리봉운에게 수갑을 채워놓은 후 머리칼을 틀어쥐고 얼굴, 가슴, 잔등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찼다. 자정이 지나 화룡시국보대대 악경 장보화와 두도진파출소 지도원 호수레가 들어 오더니 벌을 서고 있는 리봉운을 한바탕 구타했다.

이튿날 오전, 악경들은 2 명씩 한 조로 묶여 번갈아 리봉운에게 흑형을 감행했는데 그 수단이 극히 잔인했다.악경들은 그의 머리에 비닐주머니를 씌워놓고 손가락으로 입을 막아질식하게 했으며 그를 깔고 앉아 머리를 땅바닥에 짓또아 놓기도 하고 강제로 사타구니를 벌려 늘기도 했으며 그의 몸에 물을 친 후 전기몽둥이로 찜질했으며 쇠몽둥이가 부러지면 고무몽둥이로 악착스레 때렸다.리봉운은 이렇듯 온갖 흑형과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쩐싼런”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화룡시 간수소로 압송되어온 리봉운은 우연히 기회를 만나 지난 10 월 4 일에 마귀소굴에서 벗어나 지금 류리걸식하고 있다.



연변박해소식

■ 지난 11 월 4 일 오후 3 시경에 연길시파룬궁학원 주희옥(朱喜玉)은 110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 최근에 연길시하남소학교 교도주임은 전교학생들에게 “과학을 숭상하고 사교를 반대하자”는 벽보 특별란에 낼 심득체험을 꼭 써야 한다고 지시했다.

■ 요즘 연길시북산소학교 교정에 “천안문분실자살사건”그림전람을 꾸려놓고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악선전하고 있다.”천안문분실자살사건”은 중공이 가짜로 꾸며 낸 연극이라는 진상을 전교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거나 혹은 진상자료를 배포하여 그 류독을 숙청해야 한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는 법이다. 박해에 참여 한 모든 악인들은 즉각 박해를 중단하고 자신의 생명에 대해 책임지기 바란다.

